

An aerial photograph of a scenic landscape in autumn. A two-lane road bridge with a metal railing spans a calm lake. The surrounding area is densely populated with trees displaying vibrant autumn colors, including bright yellows, oranges, and some remaining greens. In the background, a small cluster of buildings, possibly a farm or a small village, is visible through the trees. The overall atmosphere is peaceful and picturesque.

지속 가능한 캐나다 여행

20220336 신수정

20220339 주다은

20220372 고현지

20220379 김난희

가을 향 물씬 나는 단풍 여행

Where - 캐나다

When - 11/2~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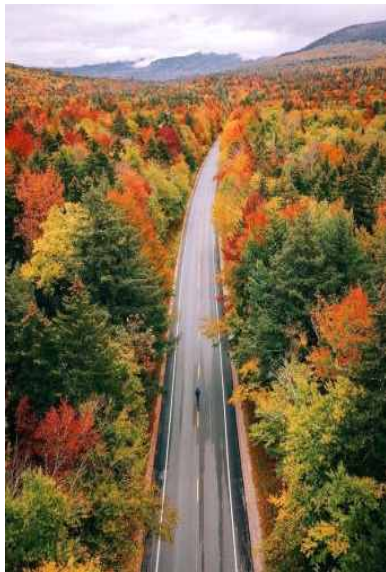
Who - 신수정, 주다은, 고현지, 김난희

How - 델타항공

1인당 비용-270만원

목적: 지속가능한 친환경 여행, 추억 쌓기

여행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줍킹, 채식과 같은 미션들을 통해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동참하며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이바지함



캐나다의 친환경 프로젝트

▶ 최근 캐나다에는 무(無)포장 친환경 스토어가 확산되는 추세다.

고객이 용기를 들고 와서 식료품을 비롯한 세제, 바디용품 등 자신이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만큼 구입해 가는 형태의 매장들이 주요 도심에서 속속 생겨나고 있다.

▶ 연방정부는 '환경오염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안을 공포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안을 오는 2021년까지 추진 발표, 밴쿠버 등 주요도시는 2019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조치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 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체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 적극 지원하며 시장의 '탈 플라스틱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운동이 확산되며 '쓰레기 배출이 없는(Zero Waste)' 친환경 식료품점이 인기를 끌며 새로운 소매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 토론토 대표 친환경 상점 >



< 친환경 식료품 마켓 >

지속가능 여행을 위한 미션

- ♥ 여행 기간 동안 고기 먹지 않기 (해산물, 야채 위주의 식단)
- ♥ 여행 기간 동안 입은 옷은 친환경 천연 비누로 손빨래 하기 (물은 받아서 최대한 절약하기)
- ♥ 여행지 돌아 다닐 때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 ♥ 관광지 별로 1일 1줍킹하기 (제일 적게 줍는 사람이 점심 쏘기)
- ♥ 여행기간 동안 물이나 음료수 텀블러에 담아서 마시기

PACKING LIST (여행 짐싸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캐리어가 아닌 에코백으로 최소한의 짐 싸기



친환경소재 옷, 언더웨어 한 벌씩

<디어라이프>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 지속가능한 가치 생각



천연비누, 양치도구

<실비오 올인원 수제 천연 비누>

-친환경 식물성 콜라겐 실크아미노산 원료



탐스슈즈

-탐스는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한 켤레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ONE FOR ONE'이라는 브랜드 철학으로 '착한 패션'의 유행을 주도했다.



에코백

<친환경 펄프 에코백>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삼림 경영인증

카팔라노 서스펜션 브리지

밴쿠버 북쪽 해안에 있는 공원

카팔라노 서스펜션 브리지 공원

-1889년부터 70m 상공에 설치한 137m 현수교,
클리프 워크 등 야외활동 제공.

-130년 이상 쌓아온 이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원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세하게 균형을 유지.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이 운영하는 UBC 식물원은
꽃에 대한 이해, 기후 적응과 기후 변화 탐구 가능

밴쿠버 자전거 도로 False Creek

-밴쿠버에는 449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



그린호텔

-운영 전반에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시행.
-자전거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

Kind Cafe & Eatery

-비건 채식 레스토랑
-전 메뉴가 비건이고,
리유저블 냅킨을 사용한다.

Chambar

-창의적인 벨기에 음식, 친환경 해산물,
맥주, 와인을 선보이는 노출된 벽
돌 벽이 돋보이는 세련된 레스토랑

-혼합 요리가 유명



밴프 국립공원

1885년 지정된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 북쪽으로는 캐스케이드산, 남쪽으로는 설퍼산에 둘러싸인 밴프 마을



밴프 국립공원

-설퍼산 정상에서 로키 산맥과 웅장한 침엽수림, 에메랄드빛 호수 등 그림 같은 풍경을 마주한다.



레이크 루이스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2위
-카누,카약 탈 수 있고 호수 둘레 하이킹,10km 트레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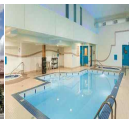
모레인 호수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1위
-10개나 되는 산봉우리가 꼭대기에 만년설을 얹은 채로 호수를 감싸고 있는 모양새.
-덕분에 밴프 국립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존스톤 캐니언

-가볍게 트레킹 할 수 있는 장소
-산책로 걸으며 협곡 사이로 흐르는 물을 구경하는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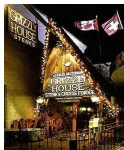
하이 컨트리 인 호텔

-환경 보호 인증 호텔
-5분 정도 걸으면 밴프 국립공원 안내소 및 밴프 레이크 루이스 여행 안내소에 도착



Lakeview Lounge

-채식주의 식단, 채식 옵션, 글루텐 프리 등 특별식 제공하는 비건식당
-토마토 수프,참깨 아보카도 토스트,버섯 샌드위치 유명



Grizzly House Restaurant

-채식주의 식단, 글루텐 프리, 풍류 요리가 유명하고 가격도 적당한 레스토랑
-해산물 풍류,브리티시 컬럼비아 훈제 송어 유명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친 폭포로서, 북미에서 가장 큰 폭포



클리프턴 힐

-도로이름이지만 관광 단지 이름처럼 쓰인다.
다양한 놀이기구 등이 있으며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후 걸어올 수 있는 거리이다.
(어트랙션 이용시 통합권 성인기준 인당 29.95달러)



엠버시 스위트 바이 힐튼 나이아가라 폴스 폴스뷰

-후기 중 가장 평이 좋았던 호텔
전망이 매우 좋으며 시설이 좋아 카페와 바, 레스토랑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기 좋다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19세기 당시 그대로인 거리의 건물이 특징
상업과 관광업의 중심지이며,
초기 온타리오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도시.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많아 볼거리가 많고 예쁜 마을



pieza pizzeria

피자 전문점이며 화덕피자로 로컬 맛집이다.

- 마르게리따 피자 \$19

- THAT Z'AMOR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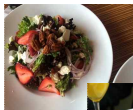
(모짜렐라, 버섯, 아티초크, 블랙올리브, 살라미가 들어간 피

자)



필리터리 에스테이츠 와이너리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안 3대 와이너리 중 하나인 곳
1993년부터 필러터리 일가가 운영해 온 와이너리 농장.
와인을 좋아한다면 꼭 추천하는 곳!



Milestones

-나이아가라 근처 식당이다.

-해산물, 샐러드가 맛있는 식당.



* 가격- 16~20불

케이프 브레튼 섬

케이프 브레튼 섬(Cape Breton Island)은 캐나다 동부 해안 노바스코샤 주의 섬



Myles From Nowhere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온 것만 같은 낭만적인 엔틱샵
누군가의 추억이 깃들어 있을 옛 가구,
접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물건도 볼 수 있다.



Cabot Trail

-브레튼 호반의 마을 베크에서부터
동쪽의 반도 언저리까지 마치 선을 두른 것 같은 300km의 해안도로로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다.



Skyline Trail

-케이프 브레튼 섬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코스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 국립공원은 26개의 트레일이 있다.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절벽의 계단이 하이라이트다.



The Dancing Goat - cafe&Bakery

케이프 브리튼의 손 꼽히는 현지인 맛집
- 옥수수 스프 & 시저 샐러드
- 달걀 샌드위치, 아보카도 베이컨 샌드위치



Le Gabriel Restaurant&Lounge

-해산물 요리가 가장 인기 메뉴인 식당
해산물 구이& 가재 샌드위치



Sea Parrot Ocean View Manor

-근처에서 스쿠버 다이빙 및 카누 등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친환경 뱃지달고 있는 숙소



* 캐벳 트레일의 바다 전망을 바로 볼 수 있다.

* 친환경 리더 골드 레벨 뱃지

여행을 통해 우리가 감축한 총 탄소 배출량

- ♠ 델타 항공 이용을 통해 탄소 배출량 25% 감축
- ♠ 채식을 통해 일반식보다 탄소배출량 약 70% 감축
- ♠ 짐을 최대한 줄이고 가볍게 체크인으로써 항공기의 무게를 감소시키며 탄소 배출량 감축에 이바지함
- ♠ 여행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 이바지함
- ♠ 여행 기간 동안 플라스틱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

느낀점

캐나다의 지속 가능한 여행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우리들의 느낀점

신수정

-캐나다에서 생각보다 많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다은

- 일반적인 여행이 아닌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고현지

-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심각성을 느꼈는데 이번 과제를 하면서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행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이 동참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름다운 나라인 캐나다도 꼭 가고 싶습니다.

김난희

-여행 계획을 짜며 친환경 숙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다음번에 여행을 간다면 친환경 숙소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캐나다 여행을 가서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대로 직접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THANK YOU